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성수련 아카데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06장 참된 신심의 효과들
제07장 참된 신심의 실천 행위



주. 진미영
드립니다.

조창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성수련 아카데미



010-8889-5425

2026

□2026-0613(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07장(257-273)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성수련 아카데미

010-8889-5425

제06장 이 신심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효과들

■■■ 0523(토) ■■■▶ 213. 마리아 신심가들이여! 만일 그대들이 내가 이제부터 설명하게 될 이 신심의 내적, 외적 행위들에 충실하게 되면 그대들은 그에 따르는 놀라운 효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첫째 효과 : 자기를 압과 자기를 업신여김

성령께서 사랑하는 정배 마리아를 통해서 그대에게 보내실 빛에 의해서 그대는 그대 자신의 사악한 성향과 타락을 깨닫고 어떠한 선행도 이를 능력이 없는 그대 자신의 무능력함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그대는 자기 자신을 업신여길 줄 알게 되고 자신을 혐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마치 그 점액으로 모든 것을 해치는 달팽이, 그 독으로 모든 것을 중독시키는 두꺼비, 또는 그저 속일 궁리만 하는 간교한 뱀과 같이 여기게 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마리아는 당신의 깊은 겸손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겸손으로 인해 그대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경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업신여기고 나아가서 업신여김받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알아차림 알아차림 알아차림)

둘째 효과 : 마리아의 신앙에 참여함

214. 마리아는 일찍이 성조들과 예언자들, 사도들 및 모든 성인들의 신앙보다 더욱 컸던 그 신앙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하늘 나라에서 군림하시므로 그러한 신앙을 더 이상 갖고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영광의 빛에 의해서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명백히 직접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마리아가 영광으로 들어가실 때 마리아의 이 위대한 신앙을 싸움 중에 있는 지상의 교회 안에서 마리아의 지극히 충실한 남편 종들에게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관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 존엄한 모후이시며 충실한 어머니에게 합당하면 할수록 모든 일에 날마다 더욱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감각적 위안이나 초자연적 은혜에 집착하지 않고, 순수한 사랑의 동기에서 그대의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사랑에 의해 고무된 생활 속의 신앙이며, 거센 풍랑과 심한 불안 속에서도 안전하고 확고하게 머무를 수 있는 바위같이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비와 인간의 최종 목적 및 하느님의 마음속까지 꿰고 들어갈 수 있는 극히 신비로운 열쇠와 같이 활동적이고 예민한 신앙이다. 그 신앙은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하여 완성할 수 있게 하는 용감무쌍한 신앙이며, 그 신앙은 휘황찬란한 햇불이며, 신비로운 생명요, 지혜의 기묘한 보화이며, 전능한 무기가 되는 신앙이다. 이러한 신앙은 죄에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며, 황금 같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냉담한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마침내 부드럽고 힘 있는 말로 바위같이 굳은 마음을 움직이고, 레바논의 삼목을 뒤흔들며, 끝내는 구원의 원수와 마귀들을 물리칠 것이다.

(참 신앙 : JX 알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고 일치하는 신앙)

셋째 효과 : 순수한 사랑의 은총

215. 이 아름다운 사랑의 어머니(집회 24, 18 참조)는 모든 불안과 공포심에서 그대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어머니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유를 지닌 채 당신 아드님이 주신 계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대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넓혀 주실 것이다. 이 어머니는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보화들을 그대의 마음속에 넣어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 그대는 이제 사랑의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닌 단지 사랑에 의해 고취되어 이 어머니의 인도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제 그분을 그대의 선하신 아버지로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게 될 것이며 한 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러하듯 그대는 그분에게 신뢰를 가지고서 그분과 대화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만일 그대가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다면 그대는 단번에 그분 앞에서 그대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용서를 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대는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그대의 손을 그분에게 내밀고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도 없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좌절함이 없이 그분에게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넷째 효과 : 하느님과 마리아께 대한 크나큰 신뢰심

216. 마리아께서는 하느님과 당신께 대한 크나큰 신뢰심을 그대에게 가득 부어 주실 것인데 왜냐하면 첫째로, 그대가 그대 자신에 의해서가 아닌 언제나 이 착하신 어머니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그대가 그대의 공로와 은총 그리고 만족감을 모두 이 어머니께 드려 그분의 뜻대로 처분하시게끔 한 만큼 마리아께서도 당신의 성덕을 그대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고 당신의 공로로 그대를 입혀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그대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느님께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 38)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셋째,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그대의 몸과 영혼을 전적으로 마리아께 드린 것처럼, 관대하시고 너그러우신 마리아께서도 놀랍고도 실제적인 방법으로 그대에게 당신 자신을 주실 것이며 그리하여 그대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서 마리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성모님, 저는 어머니의 것이오니 저를 구원해 주소서” (시편 119, 94). 또는 내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19, 26)처럼 “거룩하신 어머니, 저는 당신을 저의 어머니로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또한 성 보나벤투라의 말씀을 그대의 말로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저의 사랑하는 주인이시고 저를 구원하신 분이여. 저는 이제부터 확신을 갖고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저의 힘이시며 저의 찬미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온전히 어머니의 것이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어머니의 것이옵니다.” “오! 모든 창조물들 중 가장 복된 동정녀시여! 당신

의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기에 저는 제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과 저희 눈은 우쭐거리거나 거만해질 권리가 도무지 없사오며, 위해하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여전히 겸손하지 못하며 자신감으로 가득 차서 제 영혼을 들어 올리고 격려하였습니다. 주님, 제 영혼은 이 세상 즐거움에서 젖 떨어진,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아기와 같나이다. 그리고 이 품 안에서 저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만나이다” (시편 131, 1-2참조)

넷째, 마리아께 대한 그대의 신뢰감을 더욱 증가시킴으로써 그대는 그대 자신에 대한 신뢰심을 차츰 낮추게 될 것이다. 그대는 그대가 가진 모든 것들을 마리아께 드려서 그분이 그것을 마음대로 처분하시게끔 하였으므로 이제까지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가졌던 모든 신뢰심은 그대의 보화이신 마리아 안에서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넣어 두신 하느님의 보화가 또한 자신의 보화라고 말할 수 있는 영혼에게 이는 얼마나 크나큰 확신이며 위로인가! 어떤 성인은 “마리아는 하느님의 보물이다” 라고 말했다.

다섯째 효과 : 마리아의 영혼과 정신이 그의 충실한 종에게도 온통 넘쳐흐른다

217. 만일 그대가 이 신심을 충실히 실천한다면 마리아의 영혼은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그대의 마음에 넘쳐흐르고 또 마리아의 정신은 그대의 정신 속에 파고 들어가 구세주이신 하느님 안에서 기뻐 용약할 것이다. 암브로시오 성인은 이같이 말했다. “마리아의 영혼이 모든 사람들 안에서 주님을 찬미하고, 마리아의 정신이 모든 사람들 안에 머무시면서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시도록 합시다.”

또한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 마리아에 대해 열렬한 신심을 가졌던 어느 거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지극히 복된 마리아께서 모든 마음들의 주인이요 여왕으로 자리 잡아 모든 이들을 당신의 위대하고 거룩하신 예수께로 완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때는 언제 올 것인가? 몸이 공기를 호흡하듯 영혼들이 마리아를 호흡하는 때는 언제 올 것인가? 이 비천한 세상에서 성령께서 영혼들 안에서 재창조된 당신의 사랑스런 정배를 발견하시고는 은총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당신의 선물들과 지혜의 선물들로 모든 영혼들을 가득히 채우시고 기묘한 일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 올 것인가? 친애하는 형제여, 마리아를 통하여 지존하신 분께 선택되고 그분의 소유가 된 많은 영혼들이 마리아의 내밀한 심연 속에 빠져 들어 또 하나의 마리아가 되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마리아의 시대는 언제 올 것인가? 그 시대는 내가 가르치는 이 신심을 사람들이 알고 실천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주님,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마리아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여섯째 효과 : 그리스도를 닮은 마리아 안의 영혼들

218. 만일 그대가 이 신심에 충실함으로써 생명의 나무인 마리아가 우리 영혼 안에서 잘 가꾸어지면, 마리아는 제때에 훌륭한 열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실 것이다.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리스도를 찾는 신심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루카 5, 5)라고 자주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많이 노력했으나 조금밖에 잡지 못했다” (하카이 1, 6). 그대들의 영혼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무나 약하다. 그러나 마리아의 티없이 깨끗한 길을 걷고 내가 가르치는 이 신심을 충실히 실천하면 한낮에 힘들이지 않고 거룩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죄의 그림자조차 없는 마리아에게는 어두운 밤이란 있을 수 없다. 마리아는 성스러운 지성소이다. 그곳에서 성인들이 이루어지고 형성된다.

219. 내가 방금 성인들이 마리아라는 거푸집에서 형성된다고 말한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망치와 끌을 가지고 석상을 조각하는 것과 녹인 쇳물을 거푸집에 주어서 형태를 만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전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후자는 적은 노력과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마리아님, 당신은 하느님의 주형이라 불러 마땅합니다.” 라며 마리아를 “하느님의 주형” 이라고 부른다. 이 하느님의 주형 속에 넣어진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형상을 갖추고 조형하시게 된다. 그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하느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것은 하느님을 형성한 똑같은 주형 안에 넣어지기 때문이다.

220. 이 신심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 안에나 다른 사람 안에 형성하려고 하는 영신 지도자나 신심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기술과 능력과 노력으로만 단단한 돌이나 거친 나무토막을 망치로 무수히 두들겨 대고 칼로 깎아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보겠다는 조각가들과 아주 적절하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혹은 서투른 솜씨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

그와 반대로 내가 제시하는 이 은총의 비밀을 택하는 사람들은 하느님으로서 그리고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신 마리아라는 아름다운 주형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그 주형의 우수성에만 의지하여 마리아 안에서 그대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마리아 안으로 뛰어들어 사라져 버린다.

221. 아!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비유인가? 그러나 누가 감히 이를 완전히 이해하겠는가? 친애하는 형제여, 마리아 신심가인 그대가 이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녹아서 액체가 된 것만이 주형에 부어 넣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즉 쇠가 불에 녹아 액체가 되는 것처럼, 마리아 안에서 새로운 아담이 형성되려면 그대 안에서 낡은 아담을 녹여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일곱째 효과 : 예수 그리스도의 더 큰 영광

222. 만일 우리가 이 신심을 충실히 실천한다면 보다 더 어려운 다른 신심을 몇 년에 걸쳐서 한 것보다 단지 한 달 동안에 더 큰 영광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게 된다.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신심이 가르치는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비록 우리 자신의 뜻과 행동이 좋고 잘 알려진 것일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지만 마리아의 뜻에 따라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리아의 뜻에 참여하게 되는데 마리아의 뜻은 너무나 순수하

여서 **마리아의 아주 작은 행동으로도** 하느님께 커다란 영광을 드리게 된다. 예를 들면, 마리아께서는 물레로 실을 잣는 일이나 바느질을 하는 등의 사소한 일로도 **성 라우렌시오가 석쇠 위에서 겪은 잔인한 순교나 모든 성인들이 가장 영웅적인 행동으로 한 것보다 더 큰 영광을 하느님께 드리게 된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총과 공로를 얻은 까닭에 마리아께서 얻은 그 은총과 공로들을 헤아리기보다는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물방울 혹은 바닷가의 모래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쉬울 정도이다. 따라서 마리아께서는 모든 천사들과 성인들이 하느님께 드렸거나 드리게 될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그분께 드렸다.** 오 성모 마리아의 기적이여! 당신은 당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영혼들 안에서만 은총의 기적을 행할 수 있나이다.

223. **둘째,** 이 신심을 실천하는 충실한 영혼은 자기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거나 말씀을 드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신뢰와 기쁨은 **마리아의 의향 속에** 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은연중에 자기의 생각에 의지하고 그 속에 골몰하며 자기의 능력으로 행동하는 자들보다 이 영혼들은 더욱더 겸손을 실천한다. 그리하여 이 영혼들이 더욱더 겸손해진다면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 의해서 더욱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는 **하느님을 보다 더 높이 영광스럽게** 해드리게 된다,

224. **셋째,** 마리아께서는 우리 행동의 선물을 당신의 정결한 손으로 받아들이 **당신의 신묘한 빛과 아름다움을 더해 주시며 더욱이 당신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 바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최 많은 우리 손으로 직접 그 선물을 바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됨은 명백하다.**

225. **넷째,** 끝으로 우리가 마리아를 생각하기만 하면 마리아는 우리를 위해서 하느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마리아를 찬미하고 공경하기만 하면 마리아는 우리와 같이 하느님을 찬미하고 흠송하시기 때문이다. 마리아께서는 전적으로 하느님과 상관 관계에 있기에 나는 마리아를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부를 것이다. **마리아께서는 오로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존재하신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메아리,**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느님만을 말하고, 하느님만을 되풀이하는 **하느님의 메아리**이다. 성녀 엘리사벳은 마리아께서 “**믿으신분**” (루카 1, 45 참조)이기에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를 일컬어 복되다고

하였다. 그러자 하느님의 충실한 메아리이신 마리아께서는 그 즉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 (루카 1, 46)라고 노래하였다.

마리아께서는 그때 하셨던 것을 지금도 매일 하고 계신다. 우리가 마리아를 찬양하고 사랑하며 마리아께 어떤 것을 드릴 때 그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찬양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며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0523(토) ■■■

제07장 이 신심의 독특한 실천 행위

제01절 외적인 신심 행위

■■■ 0530(토) ■■■▶ 226. 비록 이 신심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 데에 있다(119항 참고)하더라도 **외적 신심 행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 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마태 23, 23) **외적인 신심 행위들은 내적인 것들을 도우며** 감각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또한 그 외적 신심 행위를 보는 사람들을 교화시키는 데 적합하기 때문인 반면 내적인 실천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세속 사람들이나 불평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참된 신심은 마음에 있다. 우리는 외적인 신심을 피해야 한다. 또는 신심을 외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은 허영이다. 신심은 그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한다.” 는 등의 말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나의 스승이신 주님과 더불어 이렇게 대답하겠다.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마태 5, 16). 그러나 성 그레고리오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업신여김이나 칭찬과는 상관없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드리려는 목적으로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신심 활동을 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외적인 신심 행위를 몇 가지 간단하게 소개하겠는데, 내가 그것을 “외적” 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신심 행위에 내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외적인 어떤 요소가 몇 가지 있기에 순수 내적인 것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준비와 봉헌

227. 하나의 신심 단체는 아니지만 이 특별한 신심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들

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이 준비의 첫째 시기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반대되는 세속의 정신을 없애기 위해 적어도 12일간을 보내야 한다. 그리고는 거룩한 동정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채우려는 목적으로 또한 3주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 순서는 이러하다.

$$7(20\text{단 묵주기도}) + 12 + 21(3*7) = 40$$

228. 3주간 중 그 첫째 주 동안에는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기도와 경건한 행동을 바쳐야 하며 이를 겸손의 정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앞서 말했던 우리의 나쁜 바탕에 관하여 묵상할 수 있으며, 이 첫째 주의 6일 동안에 자기 자신을 달팽이, 껍질 없는 달팽이, 두꺼비, 돼지, 뱀, 염소로 볼 수 있으며, 또는 성 베르나르도의 이 세 가지의 말씀들, 즉 우리의 비천한 기원, 도무지 존경받을 만한 데가 전혀 없는 현재의 상태, 그리고 벌레들의 먹이가 될 우리의 끝을 묵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을 밝게 비추어 주시도록 “주님,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루카 18, 41) 또는 “제 자신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는 “오소서, 성령이여” 라는 말로써 주님과 성령께 기도해야만 하며 성령 호칭 기도와 그 뒤에 있는 기도를 함께 드려야 한다. 마리아께도 도움을 청해야 하며 모든 다른 은총들의 기초가 되는 이 커다란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청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날마다 바다의 별(Ave Marks Stella)과 성모 호칭 기도를 해야만 한다.

229. 둘째 주에는 모든 기도와 활동 안에서 마리아를 아는 데 전념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 이 지식을 청해야만 하며 내가 말한 것들을 읽고 묵상해야 한다. 이러한 의향으로 첫째 주와 마찬가지로 성령 호칭 기도와 ‘바다의 별이여(Ave Maris Stella)’ 기도를 하고 이에 더하여 매일 묵주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20단이 어려울 경우 5단만이라도 드려야 한다.

230. 셋째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그 분에 관해서 말했던 것을 묵상할 수 있으며 제2부의 첫머리에 있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기도를 바꿀 수도 있다. 즉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해

주십시오!” 또는 “주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라며 하루에 수백 번씩 되풀이하는 것이다. 지난 주에 했던 것처럼 성령 호칭 기도와 ‘바다의 별(Ave Maris Stella)’ 기도를 바치고 또한 예수 성명 호칭 기도를 매일 바쳐야 한다.

231. 셋째 주간이 끝날 때에는 마리아의 손에 의해 사랑의 노예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린다는 의향으로 고해 성사와 영성체를 해야 한다. 그리고 뒤에 제시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영성체를 한 후에는 또한 뒤에 제시되어 있는 **봉헌문을 드려야** 한다. 인쇄된 봉헌문이 없을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쓰거나 쓰여진 것을 이용하고 **봉헌을 하는 날 그 봉헌문에 서명을 해야** 한다.

232. 또한 봉헌 당일에는 세례 때의 서약을 어긴 지난날의 불충실을 보속한다는 의미나 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권함에 속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께 몇 가지 공로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선물은 단식 한 번, 고행 한 번, 자선 한 번 또는 초 한 자루와 같이 각자의 신심과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만약 공경을 드리려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라고는 단지 핀 한 개밖에 없다 하더라도 착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친다면 언제나 착한 뜻만을 보시는 예수님께 그것은 충분할 것이다.

233. 적어도 1년에 한 번, 같은 날에 3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자신의 봉헌을 갱신해야 한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매일 이 같은 말로써 자신의 봉헌을 갱신할 수도 있다. “오, 사랑하옵 예수님. 주님의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저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요며,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옵니다.”

2. 마리아의 작은 화관을 외우는 것

234. 마리아께 봉헌한 사람은 마리아의 열두 가지 특은과 위대함을 공경하여 주님의 기도 세 번과 성모송 열두 번으로 된 마리아의 작은 화관을 그들의 일생 동안 매일, 하지만 어떤 부담감을 갖지는 말고 드리면 된다. 이는 매우 오래된 관습으로서 복음사가 요한은 열두 개의 별이 박힌 관을 쓰고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있는 한 여인(묵시 12, 1)을 보았는데, 이 기도는 그것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해석에 따르면 이 여인은 바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이다.

235. 이 화관을 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지만 그것을 다 열거하려면 너무 길어질 것이다. 이 신심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가르치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히 말해 본다면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마리아님, 제가 당신을 찬미하게 하시고, 당신의 원수들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제게 허락해 주소서” 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사도 신경, 주님의 기도 한번과 성모송 네 번을 드리며 영광송을 한번 바쳐야 한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보호를 비나이다” (Sub Tuum Paesidium)로 마친다.

3. 작은 쇠사슬을 지님(or 기적의 메달)

(1673-1716)

1830. 07. 18

1830. 11. 27 기적의 메달

11. 28 카타리나 라브레

(1805-1876. 1933 무덤 개봉)

1947 시성

236. 마리아 안에서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 표지로서 강복된 작은 쇠사슬을 지니는 것은 그들에게 지극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매우 거룩한 행위이고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표가 본질적인 것이 아님은 명백하며 이 신심에 열심인 사람은 그러한 표지들 없이도 잘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죄와 본죄로 말미암아 묶여 있던 마귀의 노예로서의 부끄러운 사슬을 떨쳐 버린 다음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노예가 되어 사도 바오로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사슬들은 비록 쇠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황제들의 금목걸이보다 수천 배나 더 영광스럽고 귀중한 것이다.

237. 지상에서 십자가보다 더 치욕스런 것은 없었던 적도 있었지만 오늘에 이르러 그 십자 나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가장 영광스런 물건이 되었고 노예의 사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고대인들 사이에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교도들에게 있어 이보다 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보다 더 이름 높은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사슬이 우리를 오히려 풀어 주고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그 사슬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노예에게 하는 것처럼 강제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같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마리아께 매어 놓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나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내게로 끌어 주겠다” (호세 11, 4)라며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 사슬들은 죽음처럼 강하고, 어떤 의미에선 이 영광스런 표지를 자신들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지니고 가는 충실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록 죽음이 그들의 육신은 부패케 할지라도 이 사슬들은 죄로 만들어졌기에 쉽게 찢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마지막 심판에서 육신이 부활하는 그날에 이 사슬들은 그들의 영광의 한 부분이 될 것이며, 빛과 영광의 사슬들로 변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때에 무덤에까지 그 사슬들을 지니고 갔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은 천 배나 더 행복하게 될 것이다.

238.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이 작은 사슬들을 왜 몸에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들이다. 첫째, 세례때 한 서약과 약속들을 이 신심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갱신하며, 그 서약과 약속드레 충실해야 한다는 엄한 의무를 신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순수한 믿음에 의해서보다는 감각적인 것들에 의해 그의 행동 동기가 더 좌우되는 사람의 경우에 만약 그가 하느님께 향한 그의 의무들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외적인 것들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는 하느님께 대한 자신의 의무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 작은 사슬들은 세례에 의해서 풀려나게 된 죄와 악마의 노예로서의 사슬들과, 세례 때 예수 그리스도께 맹세했던 그분께 대한 예속과 그가 자신의 맹세들을 갱신함으로써 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인정을 기억하게 하는 데 있어 놀라운 도움을 준다. 매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자신이 세례때에 했던 서약들을 생각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교도인들처럼 살아가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그들이 세례때 했던 서약들을 생각나게 해줄 만한 외적인 표지들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239.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예속되어 있고 그분의 노예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이제는 더 이상 세속과 죄와 마귀의 노예가 아님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다.

셋째,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사슬을 지니거나 아니면 사랑과 구원의 사슬을 지니거나 해야 하기에 죄와 마귀의 사슬들에 대항하여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240. 오,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는 죄와 죄인들의 사슬, 세속과 세속적인 것의 사슬들 그리고 마귀와 그 앞잡이들의 사슬들을 끊어 버리도록 하자. 그들의 불길한 멍에를 멀리 던져 버리자(시편 2, 3참조).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의 발을 성령의 영광스런 족쇄로 채우고, 우리의 몸에 그분의 사슬을 걸도록 하자(집회 6,24 참조), 어깨로 하느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고 그분의 사슬을 결코 귀찮게 여기지 않도록 하자(집회 6, 25 참조).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말들을 하기도 전에 먼저 그 영혼이 그분의 중요한 충고를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리 영혼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들어라. 내 의견을 받아들여 나의 충고를 거역하지 말아라” (집회 6, 25)

241. 사랑하는 친구여, 그대는 내가 성령과 일치하여 “성령의 사슬은 구원의 사슬이다” (집회 6, 30 참조. 지혜의 사슬)와 똑같은 충고를 그대에게 해주기를 원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상관없이 모든 이를 당신께로 이끄셔야 했으므로 그분은 죄인들을 그들이 지은 죄의 사슬로 끌어당겨서 노예처럼 그들을 묶어 그분의 영원한 분노와 정의로 응징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는 사랑의 사슬로 예정된 이들을 이끌실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요한 12, 32). “나는 그들을 사랑의 끈으로 묶어 이끌 것이다” (호세 11, 4 참조)

242.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스런 노예들, “그리스도의 포로들” (에페 3, 1 ; 필레 1, 8)은 그들의 발이나 팔에 그리고 몸이나 목에 사슬을 두를 수 있다. 1643년에 성덕의 향기 속에 선종한 예수회의 일곱 번째 총장인 빈센트 가라파(Vincent Caraffa) 신부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발에 쇠로 된 띠를 두르곤 했는데, 그에게 있어 가장 후회스러웠던 점

은 그것을 공공연히 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앞서 언급했던 예수의 아내스 원장 수녀는 자신의 몸에 철로 된 띠를 두르곤 했으며 어떤 이들은 그들이 세속에서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다녔던 것에 대한 보속으로 목에 그것을 걸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육체 노동을 할 때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임을 상기하기 위해 팔에 사슬을 두르곤 했다. ◀■■■
0530(토) ■■■

4. 강생의 신비에 대한 특별한 신심

■■■ 0606(토) ■■■▶ 243. 그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노예들은 말씀 강생의 위대한 신비(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대해 특별한 신심을 가져야만 한다. 실로 말씀의 강생은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심에 가장 들어맞는 신비인데 그것은 이 신심이 성령에 의해 고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꺼이 마리아께 속해 있기를 원하신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속을 공경하고 본받기 위함인데 그 예속은 특히 예수께서 마리아의 가슴에서 사랑스런 포로이며 노예로서 있었던 것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마리아께 의존했던 이 신비에서 드러난다. 둘째로는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베푸신 비할 데 없는 은총들에 대하여, 그리고 특히 마리아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로 선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때의 선택은 이 신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이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지닐 두 가지의 근본적인 목적이다.

244. 내가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예속” 이라고 말한 것에 주의해 주기 바란다. 많은 사람들이 앞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마리아의 노예”, “거룩한 동정녀께의 예속” 이라고 말하겠다. 하지만 보기 드문 분별력과 완전한 신심으로 유명하신 성 슬피스 신학교의 총장 트롱송(Tronson)신부님이 이 문제로 그에게 의견을 구하는 이들에게 권했던 것처럼 “마리아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245. 첫째, 우리는 지적인 자만심이 높은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들 주변에는 콧대 높은 학자들과 자유 사상가와 비평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쓸데없는 비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 신심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한 길이요 수단인 마리아로부터 이 신심의 명칭을 취하되 기도보다는 최종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신심의 명칭을 취하여 우리는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의 예수” 이라고 말하며, 우리 자신을 마리아의 노예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 내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비록 실제에 있어서는 그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앙브와제의 길로 해서 오를레앙에서 투르로 간다고 할 때, 그는 앙브와제로 가고 있다거나 또는 투르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혹은 그는 앙브와제에 가는 여행자이다. 투르로 가는 여행자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표현들에 있어 앙브와제는 단지 투르로 가는 직선 길일 뿐이며 그의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투르라는 차이점이 있다.

246. 둘째 이유는, 우리가 이 신심으로써 찬양하고 공경하는 근본적인 신비는 강생의 신비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오로지 마리아 안에서 예수를 볼 수 있으며 마리아의 가슴에 있는 예수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 마리아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 저희 안에 오셔서 당신 거룩함의 정신으로 사시옵소서” 와 같은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기도에서 볼 수 있듯이 마리아 안에 자리 잡으시고 마리아 안에 군림하시는 예수님, 마리아 안에서의 예수님의 예속에 관하여 말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다.

247. 또 다른 이유는 이러한 방법이 예수님과 마리아 사이의 긴밀한 일치치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매우 긴밀하게 일치되어 있기에 예수께서는 마리아 안에 계시고 마리아께서는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할 수 있으며, 또는 마리아는 더 이상 존재치 않으며 마리아 안에는 예수님 홀로 계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마리아를 떼어놓기보다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분리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마리아의 예수”, 마리아를 “예수의 마리아” 라고 부르게 된다.

248. 마리아 안에서 사시고 군림하시는 예수의 신비, 즉 말씀의 강생의 신비의 홀로됨과 위대함을 설명하려니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단지 이러한 짧은 말로써 만족하려 한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신비, 즉 가장 감추어져 있고, 가장 고결하고, 가장 덜 알려진 그 신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예수께서 마리아와 일치하여 “하느님의 비밀의

방” (성 암브로지오)이라고 불리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모든 선택된 사람들을 부른 것은 바로 이 신비 안에서이다. 예수께서 “그는 세상에 들어오면서 ‘오 하느님,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 (히브 10, 5-9)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그분이 만드시고 받아들이신 그분의 일생의 모든 다른 신비들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 신비 안에서이다. 그러므로 이 신비는 다른 모든 신비들의 요약이며 모든 이들의 의지와 은총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신비는 하느님의 자비와 자유와 영광의 옥좌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께 말씀드릴 수 없고 그분을 볼 수 없기에 이 신비는 우리에게 있어 하느님의 자비의 옥좌가 된다.

어머니의 말씀에 항상 귀기울이시는 예수께서는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불쌍한 죄인들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신뢰를 가지고 은총의 옥좌로 나아갑시다” (히브 4, 16). 새 아담이 이 참된 지상낙원에 거하시는 동안에 천사들도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비밀스런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마리아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옥좌이다. 그리고 이 때문에 마치 하느님께서 단지 마리아 안에서만 관후하신 것처럼(이사 33, 21 참조) 모든 성인들이 마리아를 ‘하느님의 관후’ 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신비는 아버지 하느님께 그분 영광의 옥좌가 되시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대하여 분노하신 하느님 아버지를 점잖게 하신 것은 마리아 안에서이고, 사람들이 지은 죄악들이 그분으로부터 빼앗아갔던 영광을 보상하신 것도 마리아 안에서이며, 예수께서 당신의 의지와 당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사람으로부터는 결코 받지 못하셨던 무한한 영광을, 구약의 희생 제사가 드렸던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아버지 하느님께 드린 것도 마리아 안에서이기 때문이다.

5. 성모송과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

249. 마리아의 종들은, 소수의 신자들만이 그 가치와 공로 또 그 뛰어남과 필요성을 알고 있는 ‘천사의 인사’라는 성모송을 정성되이 바친다. 마리아께서는 이 기도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미니코 성인, 카프스트라노의 요한 성인과 복자 알라노에게 발현하셨다. 이 성인들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의 신비함과 그 효과에 대한 많은 책들을 썼으며, 인류의 구원도 가브리엘 천사의 아메 마리아(성모송)를 통해서 시작되었으니까 각 개인의 구원도 이 기도과 밀접하게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널리 알리고 또 선언하였던 것이다.

성모송이야말로 거칠고 메마른 이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였고, 이 기도를 열심히 바칠 때 우리들의 영혼 속에 하느님의 말씀의 새싹이 피어나게 하여 생명의 열매인 그리스도를 향해 성장해 갈 것이라고 성인들은 말한다. 그리고 이 성인들은, 성모송은 영혼의 땅을 적셔 주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천상의 이슬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기도의 천상 이슬을 마시지 않은 영혼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만을 나게 하여 마침내 저주를 받아 불에 던져질 위험을 당하게 될 것(히브 6, 8 참조)이라고 말하였다.

250. 복자 알라노 드 로쉬가 묵주기도의 존엄성에 관하여 자신의 책에 썼던 것처럼 마리아께서는 그에게 발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이아, 전 인류에게 구원을 들려준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성모송)을 바치는 것에 누가 만일 불쾌감을 갖는다면, 성모송을 외우는데 무성의하고 태만하든지 하면 그것은 영원한 구원에 있어서 위험한 징조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마리아의 이 말씀은 우리가 만약 이 성인과 도미니코 성인 그리고 그후의 여러 세기에 걸친 경험들이 이를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대단한 위로가 되면서도 무서운 말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단자나 무신앙인 또는 교만한 자나 세속의 자녀들이 묵주기도를 싫어하고 마리아를 멸시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단자는 그래도 주님의 기도는 외우지만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는 외우지 않는다. 그들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자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루체펠을 따라 성모송을 멸시하고 냉대하여 묵주기도는 무식하고 교양 없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것이고 주로 여자들이나 하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하느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성모송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의 참다운 뜻을 알고 기꺼이 성모송을 바친다. 하느님의 종이 되면 될수록 이 성모송을 즐겨 바친다. 이는 또한 마리아께서 복자 알라노에게 명백히 알려 주신 사실이다.

251. 그 이유를 묻는다면 나는 잘 모르나 사실 그렇다는 것만을 알 뿐이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보다 더 정확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은 어떠한 부득이한 이유로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바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성모송이나 묵주기도를 바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역시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기 때문이다.

252.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종이 된 선택된 영혼들아, 성모송은 주님의 기도 다음으로 모든 기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임을 잊지 말아라. 성모송은 그대들이 마리아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찬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마리아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천사를 통해 보여주셨던 바로 그와 똑같은 찬미이기 때문이다. 이 찬미는 그 안의 신비스러운 매력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즉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은 마리아의 겸손에도 불구하고 동정녀 마리아는 영원한 말씀이 사람이 됨을 즉시 승낙하셨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 성모송을 올바르게 잘바치면 틀림없이 마리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253. 성인들의 말에 의하면, 주의 깊고 경건하게 또 정숙하게 바쳐진 성모송은 마귀들을 몰아 쫓는 마귀의 적이 되고, 마귀들을 분쇄하는 망치가 되며, 영혼들에게는 성화의 도구가 되고, 천사들에게는 기쁨이 되며, 또한 성모송은 선택된 사람들의 노래이고, 신약(新約)의 찬미가이며, 마리아의 환희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영광이기도 하다. 성모송은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천상의 이슬이고, 마리아에게 드리는 정결한 사랑이며, 마리아에게 선사하는 타는 듯한 붉은 장미와 귀중한 보석과 신주(新酒)와 신약(新藥)으로 가득 찬 그릇이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비유들은 성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다.

254. 그러므로 예수님과 마리아에 대하여 내가 가진 사랑에 의해 여러분들에게 간청하는 바는 매일 묵주기도를 하되 시간이 있으면 매일 20단을 바치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 나의 이 말을 믿었던 그 날과 그 시간을 고맙게 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축복 속에서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영원한 축복이 여러분의 수확이 될 것이다(2고린 9, 6 참조).

6. 성모 찬송에 대한 신심

255. 오와니의 복녀 마리아와 다른 많은 성인들의 모범에 따라 마리아의 종들도 하느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신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 자주 성모

찬송(마니파캣)을 노래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니파캣”은 마리아가, 엄밀히 말하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예수께서 마리아의 입을 빌려서 지은 유일한 기도이며 작품이다. 그것은 은총의 율법들 중에서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신 가장 아름다운 찬미가이며, 지극히 겸손하고 감사에 충만한 찬미가이면서 또한 찬미가들 중에서 가장 숭고하고 의기 충천하는 노래이다. 또 이 찬미가 안에는 천사들도 파악할 수 없는 심오한 신비들이 가득 숨어있다.

경건하고 박식한 학자 제르송은 생애의 대부분을 저작에 바쳤으나 만년(晩年)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모든 저서들을 장식하기 위해서 놀라운 감격 속에서 마니파캣의 해설을 저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저술한 이 책들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이 아름다운 찬미가가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는 또, 마리아께서 스스로 이 기도를 자주하셨고 특히 영성체 후에 감사의 기도로서 마니파캣을 불러 기도했다고 기록하였다. 벤조니우스(루틸리오)는 마니파캣 해설서에서 이 찬미가에 의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말하면서 이 찬미가의 소리, 즉 “주님은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습니다” (루가 1, 51)를 부를 때는 마귀들이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고 말한다.

7. 세속을 업신여김

256. 마리아의 충실한 종들은 부패된 세속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피하며 이를 위해서 내가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말한 세속을 업신여기는 데 대한 실천 사항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0606(토) ■■■▶

제2절 완덕을 지향하는 영혼들의 특별한 내적 신심 행위

■■■ 0613(토) ■■■▶ 257. 각자가 자기 신분이 요구하는 의무에 따라 게을리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지금까지 살펴본 외적인 신심 행위 이외에, 이 제부터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완덕으로 나아가려는 사람들을 매우 성화시키는 내

적인 신심 행위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내적 신심은 네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사람이 자기의 모든 행동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욱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와 더불어, 마리아 안에서 그리고 마리아를 위해서** 행동하는 바로 그것이다.

1.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258. 우리는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해야 한다. 모든 일에 있어서 마리아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영감(靈感)이신 마리아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로마 8, 14)라고 말한 바와 같이 **마리아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는** 자는 **마리아의 자녀**이며,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또한 하느님의 자녀이기도 하다. 마리아의 많은 종들 가운데서 **마리아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는 사람만이** 참되고 충실한 신심가이다.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마리아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행동하지 않고 항상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었으므로 **마리아의 정신은 바로 하느님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주인**으로서 마리아를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마리아 자신의 정신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암브로시오 성인은 “마리아의 영혼은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안에 살고, 마리아의 정신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다” 라고 말했다. 거룩한 죽음을 맞이한 예수회의 로드리게 수사처럼 유순하면서도 강직하고, 열렬하면서도 신중하고, 겸손하면서도 용감하고, 순수하면서도 풍성한 마리아의 정신에 완전히 사로잡혀 인도되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259. **영혼이 마리아의 정신에 의해서 인도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모든 행동에 앞서(예를 들면 기도하기 전에, 미사를 드리거나 미사에 참례하기 전에, 영성체하기 전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우리 눈에는 착하게 보인다고 해도 거기에는

어둠과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그것은 마리아의 거룩한 정신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자신을 마리아의 뜻에 완전히 내맡겨서 마리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끄시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일하는 사람의 손에 주어진 연장처럼 또는 연주자의 손에 있는 악기처럼 정결한 마리아의 손에 완전히 **의탁해야** 한다. 바다 속에 던져지는 돌처럼 마리아에게 자신을 맡겨야 한다. 간단하고도 빠르게 되기 위해서는 잠깐 동안 고쳐 잡은 정신과 마음의 움직임에 의해, 혹은 “사랑하옵 어머니 마리아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한마디의 말로도 충분하다. 이러한 일치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써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만일 “나는 나를 악마에게 **맡깁니다**” 하고 말했다면, 비록 그것으로 인해 아무런 감정적 변화는 갖지 못했다 해도 실제로 악마의 종이 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셋째,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나 하고 난 후에 **봉헌과 일치의 행동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빨리 성화될** 것이며 **그만큼 빨리 그리스도와의 일치에 도달할** 것이다. 마리아의 정신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도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항상 마리아와의 일치의 필연적 결과인 것이다,

2. 모든 것을 마리아와 더불어

260.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리아와 더불어** 해야 한다. 즉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리아를 성령께서 순수한 한 인간 안에 이루어 놓은 **완덕의 완전한 모델**로서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약한 힘으로 마리아를 모방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했을까?**” 혹은 “**마리아께서 지금의 나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실천한 위대한 성덕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가브리엘 대천사가 전하는 말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믿은 **확고한 신앙**, 갈바리아 산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신 아드님의 발 아래 서 있을 수 있었던 **활기 있는 신앙**, 자기 자신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침묵하며**, 모든 일에 순종하고 끝자리에 앉

기를 좋아한 깊은 검손, 세상에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마리아의 천상적 순결함을 본받아야 한다.

한 번 더 말하는 바이지만, 시간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살아 계신 하느님의 모상을 나타낼 수 있는 위대하고 유일한 주형(鑄型)은 바로 마리아이시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주형을 찾아 그 속에 흘러드는 영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므로, 그것은 이 주형이 자연적으로 충실히 그리스도를 판에 찍어 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3. 모든 것을 마리아 안에서

261. 우리는 모든 것을 **마리아 안에서** 해야 한다. 이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먼저 **마리아는 새 아담의 참된 지상 낙원임**을 알아야 한다. 옛 낙원은 바로 이 낙원의 상징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이 지상 낙원에는 새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둔 신묘한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다. 예수께서는 이 낙원에서 9개월 동안이나 기쁨을 누리셨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느님의 너그러우심으로 당신의 풍요함을 전게시키셨다.

이 거룩한 낙원은 온전히 정결하고 죄악에 물들지 않은 흙(에덴)으로 이루어졌으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아담은 어떤 오점이나 티끌도 없이 그 땅의 흙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그 땅 위에서 양분을 얻고 성장하였다. **이 지상 낙원에는 생명의 열매, 즉 그리스도를 결실케 하는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세상에 빛을 주는, 즉 선악을 분별케 하는 나무가 있다.** 이 하느님의 정원에서 하느님의 손으로 심어져서 천상의 이슬을 먹고 자라나는 이 나무는 날마다 천상의 감미(甘味)가 풍부한 과일을 맺는다. 그곳에는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여러 가지의 아름다운 성덕의 꽃들과 천사들이 탄복하는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찬 화단들이 있다. 이 정원에는 희망의 푸른 들이 있고 철석같이 견고한 높은 탑이 있으며 편리한 집이 있다.

이러한 물질적인 상징 밑에 숨은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뿐이시다. 이곳에는 먼지 하나 일지 않는 맑은 공기가 있고, 밤이 없는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을 위한 영광의 날이 계속되고 있으며, 천주성의 그림자 없는 찬란한 태양이 있고,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랑의 화덕이 있는

데 거기서 쇠가 녹아 황금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 땅에는 네 가닥(사추덕(四樞德) : 지덕, 의덕, 용덕, 절덕)으로 갈라져 흘러내리는 겸손의 강이 있어 이 낙원을 흠뻑 적셔 준다.

262. 교부들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마리아를 대사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드나드는 동쪽 문(에제 44, 1-2 참조)이라고 부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고 두 번째 역시 그 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마리아는 또한 하느님의 지성소, 안식처, 어좌, 도성(都城), 나라라고도 불린다. 이 여러 가지의 칭호와 찬사는 마리아에게 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마리아에게 영광을 주신 신비와 은혜에 알맞은 표현이다. 지존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영광의 어좌를 마리아 안에 정하시고 거기서 사셨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머물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부귀이며 영광이며 기쁨이며 행복인가!

263.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렇게 숭고하고 신성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유와 능력과 빛을 얻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거기는 옛날의 낙원 처럼(창세 3, 24 참조) 케루빔 천사가 지키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직접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이 지성소(마리아)의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나의 누이, 나의 정배인 그대는 울타리 두른 동산이요, 봉해 둔 샘이로다” (아가 4, 12). 아, 과연 마리아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봉인되어 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불쌍한 자녀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총에 의해서만 이 새로운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은총을 자신의 공로로써 얻어야 한다.

264. 누구든지 자신의 충실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은총을 얻은 후에는 즐거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내부로 들어가서 평화로운 안식을 취해야 하고 의탁해야 하며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완전히 자신을 맡겨야 한다. 그러므로 이 정결한 품속에서 첫째, 영혼은 마리아의 모성적인 은총과 자애로 양육될 것이며, 둘째, 모든 불안과 고민과 근심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된다. 셋째, 이 영혼들은 그곳에서 절대로 그 안에 침범하지 못하는 악마와 세속과 죄악에 대한 무서움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 “그 안에서 모든 일을 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즉 정신적으로 온전히 마리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무런 죄도 범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넷째, 영혼은 그리

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의 품속에서 **형성되는데** 왜냐하면 마리아의 가슴은, 교부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신비들로 가득 찬 방이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된 모든 이들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모두 그에게서 태어났지 때문이다” (시편 87, 5).

4.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해서

265.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마리아를 위해서** 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전부 마리아에게 바친 이상 시중드는 몸종이나 노예와 같이 모든 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예수께로 나아가는 신비로운 수단이며 최종 목적을 이루는 **쉬운 길로** 택하였기 때문이다. 충실한 종 또는 하인으로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이 숭고한 여주인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야 한다. 마리아의 특권이 어떤 비난의 대상 되어 있을 때에는 어떠한 공박에도 항변하여 그 특권을 수호해야 하고, 마리아를 공격하면 그의 영광을 옹호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마리아에게 봉사하게 하고, 참되고 순수한 마리아 신심을 가지게 해야 하며, 이 신심을 경멸하여 성자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리 높여 그들의 잘못을 외우는 동시에 마리아 신심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리아께 대한 이 작은 봉사의 값으로 이 사랑하올 여주인 마리아의 종이 되는 영광과, 현세와 영원에 있어서 그분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결합되어 있는 행복 이외에는 **아무 것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마리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리아께 영광! 오로지 하느님께 영광!**

5. 영성체할 때 이 신심을 실천하는 방법

1) 영성체 전

266. **첫째, 하느님 앞에서 그대를 깊이 낮추어라! 둘째, 완전히 타락한 그대 자신과 그대 자신과 그대의 눈에 훌륭하게 보이는 모든 자애심을 버려라. 셋째, “어머니, 저와 저의 모든 것이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하며 그대의

봉헌을 새롭게 하라. 넷째, 예수님의 영광에 맞지 않는 그대의 더럽혀지고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오시기에는 부당하므로 예수님께 합당하게 되도록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을 빌려 주고 도와 주시라고 마리아께 간청하여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 위하여 **마리아께서 그대에게 오시고 함께 머무시도록 간청한다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마리아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리되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은 더러움이나 잃어지실 위험 없이, 모욕당하시거나 무시 받음 없이 성모님에 의해 잘 받아들여지실 것이다. “그 한가운데에 하느님이 계시므로 흔들림이 없으리라” (시편 46, 5).

그리고 그대가 마리아에게 드리는 모든 선행이 마리아에게 영광이 되기에는 너무나 작지만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영성체로써 마리아에게 만들어 드리고 싶다고 신뢰심을 다해 말하라. 그러면 그대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바친 것보다도 더 마리아를 영광되게 할 것이고, 결국 마리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편안히 쉬시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그대의 영혼이 마구간보다도 더 초라하고 불결하지만 **마리아께서 거기 계시므로 주저하지 않으시고 오실 것이다**. “오, 마리아님. 당신을 저의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오니, 당신의 마음을 제게 주소서!” 라는 정성 어린 말로 마리아의 마음을 구하라! (요한 19, 27과 잠언 23, 26을 묵상하라)

2) 영성체하는 동안

267.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준비가 다 되었으면 곧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고 세 번 외워라! 첫 번째는 우선 **영원하신 아버지께 말해야** 하는데, 배은 망덕과 나쁜 생각을 함으로써 외아들을 받아 모시기에 부당하지만 아버지의 종(루가 1, 38) 마리아께서 그대를 대신하여 영성체하고 지존하신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희망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러라!

268. 두 번째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하고 **성자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라!** 그대의 쓸데없는 나쁜 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데에 충실하지 못했음으로 인해 주님을 받아 모시기에 부당하지만 그러나 영성체하면서 그대가 그분을

주님의 어머니이면서 또한 그대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집에 모시겠음을 말씀드려라. 또 주님께서 그대를 불쌍하게 여겨 주실 것을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휴식처로, 당신의 계약궤로 오십사고 청하여라. 그대는 예사오와 같이 자신의 힘이나 공로나 준비를 믿지 말고 어린 아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신뢰한 것처럼 그대의 사랑하올 어머니 마리아의 힘과 공로만을 완전히 믿는다는 것을 주님께 말씀드려라. “야훼님, 당신 쉬실 곳으로 갑시다. 당신의 힘 것들인 계약궤와 함께 갑시다” (시편 132, 8). 그대는 비록 예사오와 같은 죄인이긴 하지만 거룩하신 어머니의 공로와 성덕의 힘에 의지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께 감히 나아간다고 말씀드려라.

269.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오리이다” 하고 **성령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대가 행한 모든 것이 열성 없고 죄스러운 것이며, 성령의 감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성령의 사랑의 걸작품인 예수님을 받아 모시기에 부당하지만, 그러나 그대는 성령의 충실한 정배이신 마리아를 완전히 신뢰한다고 말씀드려라. 그러므로 성 베르나르도와 같이 “마리아께서는 저의 모든 희망의 근원이시니, 저는 마리아에게 저의 모든 신뢰를 두나이다.” 하고 성령께 말씀드려라! 그대는 성령께 정배이신 마리아를 또 찾아오시라고 청하면서 마리아의 품속은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순결하고 마음은 항상 사랑의 불로 타오르고 있으며, 그대 영혼 속에 성령께서 내려오시지 않으시면 그곳에 예수님이나 마리아도 형성되지 않거나 혹은 마땅하게 거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씀드려라.

3) 영성체한 후

270. 성체를 영하고 나서는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마음 안으로 모셔 들이도록 하여 그리스도를 그분의 어머니에게 맡겨라!** 그러면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충만한 사랑으로 맞아들이시고, 예수님께 알맞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며, 정성되이 경배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드리시며,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의 짙은 어둠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의무를 다하실 것이다.

271. 그대는 또한 세상에 내려와서 마리아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마음으로 깊이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 혹은 그대는 궁전의 문지기로서 왕이 여왕과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 **그 곁에 공손히 서 있어야** 한다. 두 분이 서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 그대는 정신으로 하늘과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과 마리아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그분들을 사랑하라고 청하여야. “어서 와 허리 굽혀 경배 드리자” (시편 95, 6)

272. **그대도 마리아와 일치하여 예수님께 간청해야** 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의 왕국이 이 세상에 빨리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며, 죄의 용서와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 안에서 간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 저의 죄를 보지 마시고 마리아의 성덕과 공로만을 보소서” 하고, 또 계속해서 그대의 죄를 반성하여 “주님, 저는 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흉악한 원수인 제 자신을 물리쳐 이기게 하소서” (마태 13, 28 참조) 하고 말하라. 혹은 “그는 죄를 범하고 속이는 사람이니, 그 사람으로부터 저를 구하소서” (시편 43, 1 참조) 하거나 또는 “저의 예수님, 주님은 제 안에서 더욱 커지셔야 하고 저는 스스로 작아지게 하소서. 마리아님. 당신께서도 제 안에서 커지시고 저는 점점 작아지게 하소서” (요한 3, 30 참조)라고 말하라. “오, 예수, 마리아님, 제 안에 사시며 다른 사람들 안에서도 거처하소서” (창세 1, 22 이하 참조) 하고 말하라.

273. 그대가 만일 참으로 내적 인간이 되어 고행하고 내가 그대에게 가르친 위대하고 고상한 이 신심을 충실히 실천한다면, **성령께서는 그대에게 한없이 많은 영광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영성체 중에 마리아께서 활동하시도록 맡겨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더 많은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그리고 그대가 자신을 낮추고, 보고 맞보거나 또는 어떤 감촉 없이도 평화와 침묵 중에 예수, 마리아께 귀를 기울이는 방법으로 그대는 **마리아께서 마리아 안에서 행동하시도록 맡겨 드리도록** 하라.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특히 영성체 동안에는 믿음의 작용이 꼭 요구된다. “나를 믿는 올바른 사람은 믿음으로 살리라” (히브 10, 38).
 ◀■■■ 0613(토) ■■■▶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성수련 아카데미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제06장 참된 신심의 효과들
제07장 참된 신심의 실천 행위



이름	
본명	

조창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가톨릭 성경통독 아카데미
가톨릭 영성수련 아카데미



010-8889-5425